

편집의 글(editorial review)

---

여성주의적 공간론  
지리학적 상상력의 선회를 위하여

Feminist spatial epistemology:  
for the imaginative turn in the human geography

김현철\*·정현주\*\*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구조화된 성의 착취와 폭력, 그리고 이에 침묵하거나 기생, 협조해 온 정치경제 생태계가 연이어 폭로되어 왔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살인할 대상을 찾았던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매개로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던 마약 거래, 모텔, 화장실, 지하철, 탈의실 등 일상공간 곳곳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범죄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수백, 수천의 ‘시청자’들에게 다운로드되며 양진호와 같은 자들이 막대한 부를 가지게 한 구조, 연극계와 문학계, 대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터져나온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정치계와 연예계, 학계 공간 모두 젠더화된 위계에 기반을 둔

---

\* 토론토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hchul.kim@mail.utoronto.ca)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jung0072@snu.ac.kr)

‘피’와 ‘살’의 착취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여성학계뿐 아니라 사회학계, 역사학계, 문화인류학계 등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몇 년간 집약적이고 폭발적으로 표출된 분노와 혐오의 정동에 대해 논의하고, 연대와 공동체의 상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형성해가고 있다. 그 예로 2017년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혁명의 젠더, 젠더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정기 심포지엄, 2018년부터 문화사회학회에서 “혐오와 갈등의 문화사회학”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현재까지 3차례 열리고 있는 학술대회가 있다. 특히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년도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미투’ 이후의 한국 사회: 학문 공동체의 역할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는 미투운동 이후 드러난 한국 사회의 민낯에 대해 학계가 책임감을 보이며 학계 차원에서도 공론장을 열어가야 함을 주지한 것이었다.

다양한 사회과학계에서 현 페미니즘 관련 주제를 제목에 걸며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최근 발생해 왔던 각각의 젠더 위계 관련 사건들에서 ‘공간’(화장실, 단톡방, 불법촬영의 장소들, 광장 등)이 논의상 중요한 분석 지점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기준(2016~2018년) 대한지리학회와 도시지리학회, 문화지리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등 주요 지리학계 학술대회에서 젠더 관련 세션은 단순집계로 보았을 때에도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마저 존재했던 몇 개의 여성주의 관련 논문발표들은 뚜렷한 어젠다를 가진 세션이 아닌, ‘사회 및 정치지리학’ 세션처럼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화된 세션에 속하거나 ‘생활양식과 공간’처럼 그 정치성이 탈각된 세션의 부분으로 여기저기에 흩어져 위치해있었다.

마치 연이어 정치사회면을 장식하는 들끓는 분노와 혐오의 정치와 지리학은 유리된 세계인 것처럼 ‘이성애-비장애-정상가족 중심주의’에 나를 ‘구겨 넣을 수 없는’ 수많은 몸들과 관계, 삶과 구조, 폭력과 착취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채 주요 지리학술대회의 공간은 구성되어

왔다.

물론 주요 지리학술대회에 여성주의 관련 세션이 없었다 하여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관련한 논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관련한 논문은 간간히 학술지에 실렸다. 가령 정현주(2007; 2009; 2015a; 2018)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과 에이전시로서의 위치성, 경계인으로서 그녀들의 위치성, ‘다문화’담론과 초국가적 이주의 공간적 변증법 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왔으며, 권민지(2018)는 ‘불안정성’ 개념을 통해 청년여성의 도시 내 주거공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페미니스트 지리학 이론서의 경우 『공간, 장소, 젠더』(도린 매시 저, 정현주 역, 2015), 『포스트 식민주의의 지리학』(조앤 샤프 저, 이영민·박경환 역,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질리언 로즈 저, 정현주 역, 2011), 『젠더, 정체성, 장소』(린다 맥도웰 저,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0) 등이 번역되기도 하였다.

섹슈얼리티 지리학, 특히 퀴어지리에 대한 논문은 2010년대 이후 간간히 제도권 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한유석(2013)의 논문과 김주락(2015)의 논문은 각각 이태원과 종로라는 공간에서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가시성, 공간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현철(2015)과 정희성(2018)의 논문은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의 경합지점과 공공성, 경계적 측면에 대해 논의했고, 홍예륜(2019)의 논의는 서울 외 지역에서의 퀴어퍼레이드(특히 부산, 대구, 인천)에서 도시 다양성 레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억압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로 수렴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으며, 배진희(2019)는 제주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퀴어’정치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탐문했다. 루인·정희성(2018)의 논문은 이영의 영화 <불온한 당신>(2015) 속 주요 등장인물인 ‘바지씨’ 이목을 통해 공간 내 이성애규범성, 그리고 도시-농촌이라는 이분법으로 귀결될 수 없는 공간 ‘사이’ 퀴어 정체성에 대해 탐색한다. 학술지 논문 외에는 최근 『섹슈얼리티 지리학』(케스브라운 외 편집, 김현철 외 공역, 2018)이

번역되며 퀴어지리에 관한 이론서를 인문지리 수업의 참고문헌에 넣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듯 제도권 학술대회 내 젠더와 섹슈얼리티 지리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중에서도 언어에의 갈망은 산발적인, 때로는 파편화된 분절로 ‘떠올랐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 논문들이 파편화되어 떠오르는 과정에서 여성주의 공간론이 비판공간연구에 어떻게 접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학술적인 흐름을 갖지 못하고 사라지는 데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성주의 공간연구가 필요하다’는 당위적, 시론적 주장 이상으로 논의는 크게 진척되지 못했다. 예컨대 박경환(2009)의 논문이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9년에 출간되면서 ‘교차성’에의 논의를 담지한 페미니즘 지리학이 공간연구와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을 요청하는 화두를 던졌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논의는 크게 발전하지 못한 채 여성주의 논의가 공간 연구, 혹은 지리학 교육에 필요하다는 시론적 논문(정현주, 2012; 2015b; 2016; 김하나, 2017)이 여전히 출간되고 있다.

‘시론’이라는 단어는 페미니즘이 국내 지리학에서 ‘낯선 것’, 혹은 ‘새로운 것’, ‘논의할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주의에 기반한 연구가 나와야 한다’라는 시론적이고 당위적인 논의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시론’ 이후 관련 논의가 깊어지고 축적될 수 있도록 지리학 내 동료들이 함께 논의를 넓혀갈 공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론’으로만 머물고 있는 여성주의 공간론에 대한 논의는 지리학계 내 구성원들이 해당 논의를 10년 전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새롭다’고 느끼는 ‘감각’ 그 자체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주의 공간론이 현재 지리학계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보여준다.

현재 지리학계 내 토론과 집필을 통해 집적한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와 언어에 대한 무지와 감각 없음은 그 존재를 우리의 학문

공동체 공간에서 밀어내며 비체를 생산할 뿐 아니라 비체가 된 존재의 소외와 우울을 생산한다. 그 사회적으로 재현되고 육체화된 우울과 고통의 경험들은 침묵, 혹은 ‘히스테리’라는 단어로 수렴되며 우리의 학계공간에 논의할 가치로, 정치로, 관계로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주변부의 시선으로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과 주제들을 학계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학문 발전의 다양한 가능성을 봉쇄해 버린 결과를 빚어내기도 했다.

2019년 《공간과 사회》 6월호는 이성애-비장애-정상가족주의에 부합하지 않음에서 오는 고통과 트라우마, 감정, 친밀성, 폭력과 억압, 구조화된 정치경제적 위계, 불안정성이 학계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리학계가 그 동안 비체의 생산에 침묵으로, 무관심으로 기여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더불어, 비체화된 존재와 공간이 가지는 지리학적 상상력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해 나갈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러한 기획하에서 본 특집호의 논문 3편은 다음의 지점들에 개입하며 여성주의 공간론이 지리학적 상상력의 선회와 급진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탐문한다. 첫 번째 논문인 박은선의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 옥바라지 골목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 이야기』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입각한 도시 저항운동을 민족지적 방법으로 서술한다. 이 논문은 서대문형무소 앞 옥바라지 골목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그 장소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자 동네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고 기록하기 위하여 투쟁한 주민과 이들을 지원한 운동가들의 저항의 기록이다. 서울시가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아낙들의 임시기거 100년 여관골목”이라는 안내문을 붙였듯 옥바라지 골목은 남성적 영웅중심의 역사 서술 관행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여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박은선은 이 운동이 단지 여성의 공간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라서 페미니스트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주변부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엘리트 도시계획뿐 아니라 이에 대한 기존의 도시운동도 비

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시도한다. 저자는 이를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이라고 명명한다. 권위적인 조감도의 시선을 버리고 주변부의 시선을 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약자에 대한 도덕적 옹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스트 입장이론에 의하면 이는 남성적 객관성보다 더욱 강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문적 전략이자 방법론이다. 페미니즘이 여성에게 수혜를 주자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영뚱한 젠더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 한국의 왜곡된 페미니즘 공론장에서 박은선의 논문은 페미니즘 실천과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 논문인 고민경의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너머 불안정성: (잠재적) 다문화강사의 가정 너머 불안정성의 생산 사례를 중심으로」는 지난 십여 년간 큰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인 여성적 하위주체인 결혼이민여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석틀과 개념으로 그간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문화강사라는 노동자로서 그녀들의 목소리이다. 그간의 논의는 복지적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등장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처한 취약한 현실을 고발하고 정책적 개선을 촉구하는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녀들의 취약성은 사적 공간에 갇혀 젠더화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인종적 타자이며 빈곤층이라는 이중, 삼중의 억압적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다. 고민경의 논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적 공간을 넘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결혼이민여성이 여전히 사회취약계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적 공간에서의 불평등한 젠더관계는 노동자가 된 그녀들의 노동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계급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 논문은 지구화 시대 젠더화된 하위주체로서 결혼이민 여성의 불안정한 시민권이 사회가 ‘권장’하는 적법한 노동자의 지위로도 만회되지 않는 역설을 드러냄으로써 한국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마지막 논문인 홍예륜의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를 통해 형성된 다

양성 레짐: 대구, 제주, 부산을 사례로」는 최근에서야 간헐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퀴어공간에 대한 연구의 맥을 잇고 있지만 그간의 국내 연구에서 퀴어성이 대부분 수도권을 배경으로 규정되어 왔음을 비판하면서 지방도시에서 퀴어공간의 역동적 구성을 ‘레짐이론’을 차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보수적 문화를 대표해 온 지방에서 다양성의 제를 지방정치에 뿌리내리기 위해 비정부 행위자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협상하는지를 포착함으로써 권력의 일상성과 다중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담론의 이론적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공간과 섹슈얼리티의 상호구성이라는 기존의 이분야 연구의 큰 명제를 한국의 지방도시 사례를 통해 재확인함과 동시에 포용도시와 도시권 논의에서도 거의 배제되어 온 성소수자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냄으로써 비판적 공간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논의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상 세 편의 논문은 연구대상뿐만 아니라 이론적 틀과 접근에서도 주류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틈새와 주변성을 드러내는 것을 학문적 전략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인식론과 방법론을 한국 도시공간의 해석에 적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항일독립운동가의 동지로서 독립운동의 재생산을 지원했지만 영웅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잊혀져 간 ‘아낙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고향과 장소를 상실한 사람들,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노동자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온전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결혼이민여성들, 마찬가지로 박탈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공공공간을 전유하는 성소수자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모순과 갈등을 체현하는 상징적인 주변인들이다. 이들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지만 주류질서의 모순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점하는 역설적 위치성을 지닌다. 혹은 페미니즘에서는 이를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라고 부르며 주류질서의 전복과 혁명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용이한 위치라고 본다(패트리샤 힐 콜린스 저, 박미선·주혜

연 역, 2009). 이들의 시선을 빌어 사회와 학계의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담론의 공백을 채우는 작업이 이번 특집호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민지. 2018. 『내 집 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공간과사회》 28(3), 271~301쪽.
- 김주락. 2015. 『드러냄으로 물들이는 공간』. 《문화역사지리》 27(3), 100~113쪽.
- 김하나. 2017. 『중학교 <사회①>교과서 지리 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Sexism):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철. 2015.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공간의 공공성: 2014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51, 12~62쪽.
- 도린 매시 저. 정현주 역. 2015.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루인, 정희성. 2018. 『퀴어와 공간의 관계 재구성: 영화 <불온한 당신>(이영, 2015)의 바지씨 이목을 통해 한국이라는 공간의 이성애 규범성과 도시·촌락 이분법 탐문하기』. 《공간과사회》 63, 194~226쪽.
- 린다 맥도웰 저.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파주: 한울.
- 박경환. 2009. 『교차성의 지리와 접합의 정치: 페미니즘과 지리학의 경계 넘기를 위하여』. 《문화역사지리》 21(3), 1~16쪽.
- 배진희. 2019. 『'퀴어'정치의 가능성: 제주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영. 2015. <불온한 당신>. 여성영상집단 움.
- 정현주. 2007. 『공간의 뒷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53~68쪽.
- \_\_\_\_\_. 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101~121쪽.
- \_\_\_\_\_. 2012.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젠더와문화》 5(1), 105~144쪽.
- \_\_\_\_\_. 2015a.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 지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



- 50(3), 289~303쪽.
- \_\_\_\_\_. 2015b. 『시각적 방법론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심상지도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61~170쪽.
- \_\_\_\_\_. 2016.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지리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283~300쪽.
- \_\_\_\_\_. 2018.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의 공간적 변증법』. 《공간과사회》 66, 264~272쪽.
- 정희성. 2018. 『역설적 공간으로써 퀴어문화축제 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앤 샤프 저. 이영민·박경환 역. 2011. 『포스트식민주주의의 지리』. 여이연.
- 패트리샤 힐 콜린스 저. 박미선·주혜연 역. 2009. 『흑인 페미니즘 사상』. 여이연.
- 한유석. 2013. 『성소수자들의 공간 점유와 커뮤니티 만들기』. 《서울도시연구》 14(1), 253~269쪽.
- 홍예륜. 2019. 『지방도시의 퀴어 축제를 통해 형성된 다양성 레짐: 대구, 제주, 부산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역사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ihs21.com/modules/doc/index.php?doc=intro>.